

노동-자본의 뫼비우스 띠와 2010년대 후반 한국소설의 일·노동

: 향후 서사 속 노동의 문제설정 방식에 대한 단상을 곁하여*

김미정

서울예술대학교 강사

목차

- 1 “알바를 RESPECT!”
- 2 ‘노동’에서 ‘일’로: 한국소설이 선택한 표제어의 의미와
노동의 재현법을 중심으로
- 3 노동-자본, 인간-시스템의 뫼비우스 띠와 서사의 양상
 - 3.1 시스템의 압도성, 인간의 패배: 김혜진의 『9번의 일』(2018)
 - 3.2 공모의 조밀한 회로와 생존 테크놀로지로서의 활기
: 장류진, 「일의 기쁨과 슬픔」(2018)
 - 3.3 부드러운 전제(專制)와 통제·제어사회에서 자연화하는 무기력
: 김세희, 「가만한 나날」(2018)
 - 3.4 이중구속의 시스템, 그러나 다른 조건을 발견하는 사람들
: 조해진, 「경계선 사이로」(2019) / 「하나의 숨」(2019)
- 4 다시, 인간의 조건: 향후 서사 속 일·노동의 문제설정 방식
전환에 대한 단상

* 이 글을 읽고 중요한 지적 및 의견을 보내주신 이지은 선생님 및 익명의 심사위원 선생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본 논문이 1980년대 노동문학(소설)을 중요한 참조항으로 삼으면서 적극적으로 재구성해내지 못한 1990년대-2000년대 여성의 일·노동의 정황에 대해서는 추후 과제로 이어갈 수 있도록 하겠다. 그리고 노동에 대한 이 글의 문제의식과 실제 문학작품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지 못한 점에 대한 소중한 지적들이 있었다. 이는 필자의 부족함과 더불어, 오늘날 문학작품에서 생산되는 작품들과 문학장 바깥의 문제의식들이 쉽게 연동되지 못하는 측면과도 무관치는 않을 것이라는 의견을 보태고 싶다. 그렇기에 이 글은 결론부에서, 문학 속 노동에 대한 문제설정 방식 전환에 대한 제언을 첨부하였으나, 이 점은 지면을 전혀 달리하여 ‘문학’과 다른 분과(영역) 사이 문제의식 차이의 문제로도 논의해 볼 수 있을 것 같다. 오늘날 분과학문이 각기 조밀해지고 점점 더 소통하기 어려워진 양상과도 관련될지 모르겠다.

이 글의 목적은 두 가지이다. 첫째, 2010년대 후반 노동-자본의 조건이 서사와 어떻게 관계 맺고 있는지 검토한다. 이를 위해 이 글은, 오늘날 노동-자본 관계가 텍스트 안에서 어떻게 의식·무의식적으로 교섭하고 있는지 살핀다. 이것은 반드시 오늘날 노동의 조건과 시대의 성격에 대한 검토를 요구한다. 이 글이 특히 주목한 것은, 오늘날 시스템에 인간이 부드럽게 공모되어 가면서 노동-자본의 관계가 단순한 적대로 환원될 수 없는 복잡성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능동적, 주체적 인간관 역시 흔들리고 있다. 이것은 창작방법의 차원에서 일·노동 소설 주인공의 캐릭터가 만들어지는 측면과도 관련된다. 소설의 캐릭터는 대체로 그가 속한 시스템 및 그가 하는 일에 의해 결정된다.

두 번째로 이 글은, 노동을 문제설정하는 방식이 달라져야 한다는 점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 글에서 다루는 일·노동 소설들은, 일을 둘러싼 ‘모멸’과 ‘존엄’ 사이에서 갈등하고 고민한다. 그리고 결국에는 ‘존엄’ 쪽으로 도약하기를 갈망한다. 이런 점에서는 과거의 일·노동 서사와 크게 다를 바는 없다. 하지만 이러한 노동의 관점은 근대적 ‘인간=비오스(bios)=존엄=능동=주체=개체=자립=심신건강’ 등의 가치에 기대고 있다. 이것은 자연스레 ‘동물=조에(zoe)=모멸=수동=객체=의존=장애=질병=나이듦’을 구성적 외부로 갖는다. 그리고 노동의 규범성은 이런 구성적 외부를 지양하면서 추구되어왔다. 그렇기에 노동할 수 있는 권리는 곧 시민권과 동일시되기도 했다.

하지만 이때 임금노동으로 환원될 수 없는 수많은 활동과 정동을 놓치기 쉽다. 또한 권리의 분배 문제를 들지우는 자본주의 시스템 바깥에 대한 상상도 봉쇄되기 쉽다. 즉, 노동은 현실 속 시민권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다른 관계와 세계에 대한 상상으로 연결될 수 있어야 한다. 궁극적으로 근대의 노동중심성을 질문하는 것은 이 글의 조심스러운 결론이자 다른 글의 시작이어야 할 것이다.

국문핵심어: 노동-자본, 통제·제어사회, 부드러운 전제, 시민권, 근대적 노동관, 관계적 노동, 2010년대 후반 한국소설

1 “알바를 RESPECT!”

여러 서사 미디어 중에서도 광고는 1분 남짓 사이에 시대의 변화를 단번에 직감케 하는 미디어인 것 같다. 2018년 하반기~2019년 상반기, 국내 대표적 구인구직 플랫폼 기업들의¹ 메시지는 “알바는 딱! 알바답게” “알바를 RESPECT!”로 간명하게 요약할 수 있었다. 계약된 시간과 임금에 할당된 내용만큼만 충실하면 된다는 것, 그리고 알바도 노동시장 내의 어엿한 직업으로 인정, 존중받아야 한다는 메시지였고, 이것은 일견 ‘아르바이트’(이하 ‘알바’)라는 비정규, 단기, 임시직 노동형태의 권리를 노동시장 안에서 정당하게 자리매김하자는 캠페인에 가깝기도 했다.

물론 이것은 구인구직 기업들이 노동시장의 기울어진 관계를(대등하게 계약되는 관계라고 해도 노동력 판매자가 많은 상황에서는 늘 구매자에게 유리하므로) 바로잡겠다는 식의 정의로운 발상 때문은 아니다. 평생직장, 가장의 노동력에 구성된 전체가 의존하던 가족 모델 등이 붕괴하며 규범적 세대·젠더의 노동분할이 흐릿해지고, ‘알바’로 상징되는 불안정한 일의 형태가 오히려 상례가 된 것, 그리고 노동력 판매자와 구매자 모두 노동시장 플랫폼 기업들에게 동등한 ‘고객’으로 간주되는 상황의 반영일 것이다.

한편, 전 알바노조, 현 라이더유니온 활동가 박정훈은 두 광고가 기존 노동윤리나 알바에 대한 관념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 감탄하면서도, 여기에 현 사회의 능력주의나 젠더역할에 따른 고정관념이 반영되었음을 지적한다.² 예컨대 “알바를 RESPECT!”라는 메시지는 커피전문점의 복잡한 주문 메뉴얼에 능통한

-
- 1 ‘알바천국’과 ‘알바몬’의 광고들을 지칭한다. ‘알바천국’의 본사인 (주)미디어윌네트웍스는, 1997년 pc통신 나우누리에 아르바이트 정보를 제공하면서 시작되었고(주식회사 설립은 2003년), ‘알바몬’의 본사인 ‘잡코리아’는 1998년 취업검색엔진 (주)칼스텍으로 시작했다. 이 글의 각주4번 참조.
 - 2 박정훈, 「알바노동과 기본소득」, 『문학3』, 창비, 2019년 2호, 39-49쪽.(‘일×존엄을 상상하기’라는 기획주제 하에 실린 글이다.) 박정훈, 「쌈디와 전소미의 ‘알바 광고’, 이렇게 전복적일수가」, 『오마이뉴스』, 2019.2.19. http://www.ohmynews.com/NWS_Web/Series/series_premium_pg.aspx?CNTN_CD=A0002512607 (최종검색일: 2021.4.22.)

알바생의 능력을 예찬한다. ‘RESPECT!’라는 제안은 알바의 능력을 단서로 이루어지고, 능력이 있다면 그에 상응하는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메시지를 분명하게 전한다. 또한 “알바는 딱! 알바답게”라는 메시지를 여자 알바 모델이 단호하게 복기할 때, 이것은 알바의 노동권에 대한 정당한 주장으로 전달되지만, 당시 최저임금인상을 둘러싸고³ 고용주와 고용인 사이의 갈등까지 부추기는 듯한 이미지가 여성젠더에 할당된 것은 어딘지 상투적인 것이었다. 즉, 박정훈의 지적처럼 능력 있는 알바의 이미지는 남성 모델에게, 고용주에게 권리를 주장하며 자극하는 이미지는 여성 모델에게 할당된 것도 유의하여 볼 일이었다.

2018년 하반기부터 두 업체가 경쟁하듯 송출한 이 광고들은 여러모로 한국의 노동을 두리싼 변화의 핵심을 환기시켰다. 가령 자본가/노동자, 정규/비정규직 식의 대립적 이분법이나, 육체노동(물질생산노동)에 근거해온 ‘노동’의 이미지가 일찌감치 유동해온 것, 과거 파트타임이라는 이름으로 여성(주부)에게 할당된 비정규직과 정규직 남성 노동의 규범성이 깨진 것, 나아가 노동시장에 새롭게 포섭되고 있는 비정규 알바 노동이 기존 노동법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문제, 그리고 일의 존엄에 대한 메시지까지 이 광고들은 정확히 상기시키고 있었다. ‘불안정한 무산계급’의 의미에서 고안된 ‘프리카리아트’라는 말도 특정 계급 개념이나 사회학적 분석 개념이 아니라 대다수 사람들의 삶의 양태, 조건이 되었고, 이제는 그 불안정함과 취약함을 어떻게든 전유해서 잘 살아내자는 메시지까지 기업 측에서 발화하는 중인 것이다. 여기에서 능력을 매개로 한 평등과 공정의 감각이 서사화된 것, 능력주의가 존엄, 존중의 선행 조건처럼 놓여 있는 것은, 이 광고가 표면화한 인권·노동권이 21세기식 적자생존의 심상에 기대고 있음을 암시한다. 요컨대 ‘알바’를 노동시장 안에서 정당하게 평가해야 한다는 인식, 그리고 노동을 고된 일이 아닌 자기선택에 의한 성취와 존엄의 확인으로 연결하자는 제안이 노동력 시장 플랫폼 기업 측에서 적극적으로 발화된 것은, 2010년대 후반 한국의 노동, 자본주의 단계를 보여주는 단적인 풍경이다.

3 2018년 최저임금은 2017년 6470원에서 7530원으로 16.4% 대폭인상되며 자영업자vs.알바생 구도의 여러 논란이 오가기도 했으나, 최저임금 인상은 2017년 대선 당시 모든 후보의 공약사항이기도 했다.

참고로 오늘날 구인구직 플랫폼 기업이라고 말해지는 이들의 일(인력알선 소개)은 사실 과거 ILO에서 금지되었던 것이고, 각 문화권에서도 떳떳하지 못한 이미지를 갖고 있던 것이었다. 하지만 산업구조 및 노동시장의 변화 요구 속에서 ILO는 1994년 총회에서 안전 채택에 이어 1997년 민간고용서비스사업 협약(Private Employment Agencies Convention) 권고를 채택⁴했고, 이후 전세계적으로 간접고용사업은 확대되어갔다. 이른바 인간의 노동력을 책임소지 불분명한 장소에 놓고 일회용 상품처럼 취급하는 일이 법제화, 자연화되어 간 것이 어찌면 지금 노동 관련 문제들의 핵심이다.

한국의 경우 1998년 ‘파견근로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 제정과 함께 오늘날 무수한 현장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간접고용(근로자공급, 파견 하도급, 용역 등) 형태가 일반화되기 시작했고, 2006년 11월 비정규직보호법이라는 이름으로 오늘날 노동 형태의 일반적 조건이 완비되어갔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지금 간접고용 노동력 시장 플랫폼에서 목도하는 노동권 존중, 인간 존중의 메시지는, 인간 노동력을 민간의 상품으로 취급하며 시장 안의 탄력적 일회용품으로 전제하던 시장 측의 20여 년 사이의 발 빠른 태세전환이기도 한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태세전환의 과정에서 ‘노동’이 아니라 ‘일’이라는 말이, ‘노동자’가 아니라 ‘근로자’라는 말이 다시금 강조되는 경향도 새삼 주목된다.⁵ 이것은

4 문무기, 「간접고용(근로자공급·하도급·파견·용역) 규율의 법리」, 『노동리뷰』 통권4호, 한국노동연구원, 2005. 4, 35-46쪽. 한편, 일본의 경우도 민간의 직업소개업이나 노동자 공급업은 전후(戰後)에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었고 노무 공급은 본래 야쿠자의 일이라는 부정적 인식이 있었으나, 1986년 노동자 파견법 적용 이래 전직종으로 확대된다. 아마미야 가린, 김미정 역, 『살게 해줘!: 프레카리아트, 21세기 불안정한 청년의 노동』, 2017, 1장, 7장.

5 참고로, 어원적으로 ‘노동’으로 번역되어온 labor(영), Arbeit(독), travail(프)에는 고되고 가혹하며 강요받는 노예적 노동의 뉘앙스가 담겨있다. 이와 비교할 때 work(영), Werk(독), oeuvre(프) 쪽은 예술상의 일, 작품 등의 의미에 가까운 일로 사용된다. 단적으로 독일어에서 신의 천지창조는 Werk이고, 어떤 성취를 위해 필요한 인간의 노고는 Arbeit로 표현된다. 고대 그리스어에서도 육체노동과 정신노동은 대립되었고, 정신노동 우위의 노동관이 중세까지 이어진다. 이것은 한나 아렌트가 『인간의 조건』에서 노동, 작업, 활동을 구분하는 맥락과도 관련이 있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 책들을 참조할 수 있다. 柴田隆行(監修), 石塚正英, 『哲学·思想翻訳語事典』, 論創社, 2003, 121-122쪽; 존 홀러웨이, 조정환 역, 『크랙 캐피탈리즘』, 갈무리, 2013; 한나 아렌트, 이진우·태정호 역, 『인간의 조건』, 한길사, 1996.

일견, 체제 분단 이후 국가-자본이 노동(勞動)을 근로(勤勞)로 대체해온 남한 현대사의 흔적과 관련되지만,⁶ 그것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사정을 더 감안하고 싶다. 앞의 광고 사례들처럼 고된 노동, 착취, 소외 등의 부정적 이미지를 보람있고 뿌듯한 일의 이미지로 전환하려는 분위기가 최근 구인구직 플랫폼 업체의 기조처럼 여겨지는 경향이 엿보인다. 이전보다 훨씬 능동적으로 피고용인 친화성을 표방한다. 예를 들어 최근 한 건설 일자리 플랫폼 업체 대표는 “‘노동(labor)’에서 더 나아가 ‘일(job)’로, ‘노동자(laborer)’가 아닌 ‘근로자(worker)’로서 업에 대한 태도의 변화를 만들어 건설에 대한 선한 영향력으로 부정적인 사회인식을 바꾸고 누구나 건설에서 당당하게 인정받으며 일하고 싶은 세상을 만들고 싶다.”는 인터뷰를 한다.⁷

인용에서도 명료하게 확인되지만 지금 자본이나 대중의 말의 감각에서 ‘노동(labor)’과 ‘노동자(laborer)’는 지양되고 ‘일(job)’과 ‘근로자(worker)’가 지양되고 있다. 이 인용은 건설노동으로 상징되는 이른바 노가다, 육체노동의 고되게 여겨지고 폄하된 이미지를 ‘일’ ‘근로’라는 말을 통해 자존감을 부여하고 생산력을 높이자는 국가-자본 측의 오래된 메시지와 상통한다. 또한 최근 발간되는 일 관련 자기계발서⁸의 메시지 역시, 유연한 노동이 권장되는 시대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 ‘직장인’이 아니라 ‘직업인’이 되자고 역설한다. 이때에도 일(work)이라는 말이 다용(多用)된다. 소외된 노동에 억압된 존재가 아니라 이른바 유적(類的) 존재로서의 인간이 되자는 메시지는 지금 자본 측에서 적극적으로 발하고 있다.

즉, 최근 노동시장 플랫폼의 일 관련 메시지는 기존 ‘노동/근로’라는 말의 역

6 같은 시기에 일, 노동, 근로 등의 한국어 용법과 관련해 민주언론시민연합이 신문·방송 모니터위원회와 공동기획한 노동 관련 용어 모니터 보고서(「노동자는 근로자일까?」, 2019.09.10.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2284>) (최종검색일 2021.4.22.)는 ‘근로-수동-소극적-객체 vs. 노동-능동-적극적-주체’의 도식처럼 한국에서 ‘노동’이 지양되고 ‘근로’가 사용되어온 맥락을 선명하게 보여준다.

7 「한국의 인물—건설 일자리 플랫폼 부문: (주)웍스메이트 대표 인터뷰」, 『이슈메이커』, 2020.11.12. <http://www.issuemaker.kr/news/articleView.html?idxno=32763> (최종검색일 2021.4.22.)

8 대표적으로 이런 책의 제목이 선명하게 그 논리를 보여준다. 성남주, 『호모워커스—직장인에서 직업인으로』, 답아, 2020.

사성에 더해, 노동이란 말 자체에 깃든 고되고 힘든 이미지, 그리고 자본주의 속 노동의 역사를 포함하여 불평등의 문제나 직역에 따른 편하의 시선 등을 적극적으로 벗겨내고자 하는 의도까지 모두 포괄하려 한다. 반복하지만 여기에는 비정규 유동적 노동이 자연화, 상례화된 시대, 공장중심의 생산노동에서 (돌봄이나 감정노동으로 지칭되기도 하는) 재생산노동이나 비물질노동으로 그 의미가 확장·이행한 것 등 노동-자본 관계 혹은 노동 조건의 구조 변화가 놓여 있다.

‘존중받는 일’이라는 기업 측 말은 지금 조건을 발빠르게 전유하려는 전략이지만 이것이 당연히 노동 현장에서의 오랜 요구였음은 강조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요컨대 노동-자본의 관계가 일방적인 힘 관계로만 이해될 수 없다는 문제의식은, 최근 노동 활동(운동) 현장의 전략에서도 발견된다. 서로가 서로에게 점점 더 노동자이면서 고객이면서 자본가(자기사업자)라는 분열적 정체성을 동시에 부여받으면서, 자율적 노동이라는 말에 속고 있는 상황들이 운동 측 문제설정을 구성하고 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라는 전략을 넘어서, 비정규, 플랫폼, 알바 노동을 어엿한 직업, 제3의 노동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요구와 전략까지 제안되고 있다.⁹

2 ‘노동’에서 ‘일’로

: 한국소설이 선택한 표제어의 의미와 노동의 재현법

한편, 비슷한 시기 발표되고 화제가 된 한국소설들의 제목에서도 ‘일’이라는 말이 두드러졌다. 2018년 창비신인소설상 수상작은 장류진의 「일의 기쁨과 슬픔」이었다. 이 작품은 2018년 9월 중순, 계간 ‘창작과비평’ 홈페이지에 공개되면서 SNS 등의 입소문을 타고 40여만 건의 누적 조회수를 얻어 화제가 되었다. 판교 테크노밸리의 한 IT스타트업 회사에 근무하는 젊은 사무직 여성들의 이야기였고 당시 많은 독자(유저) 사이에서 ‘현실적인 직장생활 이야기’라는 감상이 오갔다. 또한 비슷한 시기, 통신회사 노조 취재를 바탕으로 작가 김혜진은 『9번의 일』을

9 박정훈, 『이것은 왜 직업이 아니란 말인가』, 빨간소금, 2019, 서론 및 1장.

발표한다.¹⁰ 통신회사 설치기사로 26년 근속 후 퇴직을 강요받는 남성의 이야기를 다루었고 연대(마을)와 개인 모두 파국에 이르는 과정을 그린 소설이었다.

엄밀히 말하자면 이 소설들의 표제어가 ‘일’이어도 ‘노동’이어도 그 함의는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것이다. IT스타트업 사무실 안에서의 일이건, 연장과 도구를 갖고 현장을 뛰며 땀흘리는 일이건 모두 통상 말하는 ‘노동’이지만 ‘일’이 표제어로 선택되었다. 하필 ‘일’이 표제어로 등장한 것은, 우선은 앞서 언급한 ‘노동’을 둘러싼 조건, 상황의 변화와 무관치 않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 장류진과 김혜진 소설이 노동시장 플랫폼 기업 측이 다용하는 ‘일’의 맥락에 놓인다는 말을 하려는 것은 아니다. 표제어 ‘일’이 자본주의 속 노동인 한, 우선은 과거 ‘노동’의 표상과 지금 그것이 얼마나 같고 다른지를 생각해보게 된다. 지난 세기 강렬했던 노동문학의 유산, 그 문제의식과 표상을 괄호치고 이 소설들을 읽을 수 없다는 것이기도 하다. 그런 의미에서 ‘일’이라는 표제어는 우선은, 과거의 공장중심 노동, 노조와 연동되던 ‘노동’ 표상으로 환원되지 않는 무수한 노동을 환기시킨다.

1980년대 노동소설을 논한 정고은은 “노동소설이 소규모가 아닌 대규모 작업장(조선소 등의 중화학공업 현장을 중심으로), 여성노동자가 아닌 남성노동자, 단일 사업장이 아닌 다른 사업장과의 연대를 그려내는 것”이 작품의 성패를 결정했다고¹¹ 지적한다. 이것은 과거 노동 표상이 젠더, 심신의 건강성 여부, 연대의 성패 등과 직결되었다는 의미이다. 또한 당시 노동의 표상이 정규직 남성중심, 강한 육체를 생산수단으로 삼는 노동, 노조 중심 연대의 규범성과 관련되었음을 확인시킨다. 어쩌면 지금 일·노동 소설이란 이러한 규범적 노동 표상과 재현을 넘어, 다양한 특이성과 주체성의 발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일이라는 표제어는 우선은—돌봄, 가사, 감정 노동 등 여성에게 전통적으로 할당된 부분 재생산 노동의 실제 및 (최근 비로소 환기되는 바지만) 비인간 동물(+생태)의 막대한 부분 노동이 추출, 수탈되어온 역사 등—기존 노동 표상, 노동소설의 규범성에 대한 의식, 부담을 줄여주는 측면이 있다.

10 장류진, 『일의 기쁨과 슬픔』, 창비, 2019; 김혜진, 『9번의 일』, 한겨레출판, 2019. (두 소설집 모두 2019년 10월에 출간되었다.)

11 정고은, 「노동이 멈춘 자리—방현석 노동소설 재독」, 『반교어문연구』 제46집, 반교어문학회, 2017. 9, 173쪽.

또한 표상의 문제는 필연적으로 대표, 재현의 문제와 연동된다. 가령 장류진의 소설들은 조희수에 대한 에피소드와 더불어, 작가가 정통적인 문학수업 코스만을 밟아오지 않고 실제 회사원, 즉 자기 이야기를 썼다는 점에서 화제를 불러모았다. 추상-보편화될 수 없는 각각의 일과 삶들이 다양하게 이야기되는 징후이기도 했다. 1980년대 노동문학을 돌아보는 과정에서 노동(자)의 대표성과 전도(顛倒)의 문제를 읽어내는 이해령은, 1980년대 노동문학의 생산주체는 “당대 한국의 현실과 미래에 대한 노동자계급의 시각을 담아야 한다는 의식”에서 생성된 결과 “노동문학은 이론이나, 과학적 세계관으로 일컬어진 것에 지나치게 지배되고 있었다기보다는 노동자들을 그것으로 소외시켰다.”고¹² 말한 바 있다. 이해령의 말에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첫째 존재의 대표(재현)될 수 없는 근본적 운명이 특히 1980년대 노동문학에서 역설로서 두드러졌다는 것이고(그렇기 때문에 노동자 글쓰기에 대한 학계의 관심은 필연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둘째 문학의 운동성을 둘러싼 지난 세기 대표-재현의 관계가 지금 소설에서는 다르게 이야기될 가능성으로 다가온다는 점이다.

‘노동’의 표상·재현·대표의 문제를 생각하는 것은, 김혜진의 『9번의 일』에서 ‘노조’ 관련 대목들을 읽을 때에도 어떤 참조점을 준다. 예컨대 오길영은¹³ 김혜진 소설에 노조가 등장은 하지만 주인공이 그에 대해 기대를 걸지 않고 비판적이며, 사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보지도 않는다고 평했다. 실제 김혜진의 소설에서 노조는 누군가의 죽음을 “시위나 파업에 이용”하거나 “국가 자본, 세계와 빈곤 같은 거대한 단어”들을 통해 개별자의 삶을 “힘없고 나약한 피해자”로 만드는 존재처럼 묘사된다. 노조와 회사는 개별자의 삶 앞에서 마치 등가적인 것처럼 그려진다. 그리고 여기에서 유독 대비되는 것이 “노조에서 하든 회사에서 하든 무슨 상관인가요. (...) 저랑 애들은 살아야죠. (...) 전 돈이 필요해요.” 같은 말이다.

그렇기에 오길영의 지적은 중요하다. 그런데 그가 아쉬워한 김혜진의 비판

12 이해령, 「노동하지 않는 노동자의 초상—1980년대 노동문학론 소고」, 『동방학지』 제 175집,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2016. 5, 315쪽.

13 오길영, 「노동소설에서 사회소설로: 장류진 『일의 기쁨과 슬픔』과 김혜진 『9번의 일』, 『황해문화』 통권107호, 새얼문화재단, 2020년 여름호, 299-314쪽.

주의는, 이 작가가 그동안 재현-대표의 문제에 대한 질문을 거듭해 노정해 온 것이기에 조금 더 보충할 것이 있다. 즉, 소설 속 노조 묘사는 단순히 노조, 연대에 대한 회의라고만 보기는 어렵다. 김혜진 소설에는, 어떤 자리와 시선을 가지고 있는 서술 ‘주체’와, 보여지고 그려지는 ‘대상’ 사이의 ‘역학’을 민감하게 질문하는 문제의식이 있다. 기존의 노조, 노동자 표상을 성립시키는 연대와 공동체의 이미지를 그대로 답습하는 것이나 외부자의 시선에 의해 낭만화되기 쉬웠던 문제를 피하려는 의도가 『9번의 일』에서 엿보인다.¹⁴

하지만 지금 분명한 것은, 서비스 감정 노동자의 굴욕적 일상(황정은, 「복경」, 2014), 노동거부에 가까운 사무직 비정규직의 삶(김금희, 「조중균의 세계」, 2014), 알바생과 중간관리자의 갈등(장강명, 「알바생자르기」, 2015), 바이럴 마케팅 종사자의 죄책감(김세희, 「가만한 나날」, 2018), IT 스타트업 사무실의 풍경(장류진, 「일의 기쁨과 슬픔」, 2018), 신뢰해온 회사에 배신당하는 노동자(김혜진, 『9번의 일』, 2018), 시스템이 만드는 노동의 분할과 적대들(조해진, 「경제선 사이로」2019) 외주화된 가사 노동과 분할되는 여성들(장류진, 「도움의 손길」, 2018 / 이주혜, 『자두』, 2020), 교육현장 고학력 여성들의 생존기(서수진, 『코리안티처』, 2020), 프리랜서 일의 모델과 존엄(김세희, 「프리랜서의 자부심」, 2020) 등등 나열하기에도 벅찬 무수한 일의 현장과 더불어, 동물 수탈을 노동의 관점에서 접근할 여지까지 주는 소설에 이르기까지,¹⁵ 과거 식민지기부터 한국문

14 재현에 대한 김혜진의 고심은 여성, 퀴어, 소수자, 약자 등과 관련된 고정된 이미지 박스로부터 이탈시키려고 재창조하려는 노력으로 표현되었다. 하지만 간혹 결과적으로 존재나 사안이 개별화되거나 연대·공동체적 타개 가능성을 차단한 듯 보이는 것과 그 효과에 대해서는 생각해볼 것들이 있다. 그 점은 ‘노동’이라는 주제를 넘어 표상·대표·재현에 대한 질문이 객관이나 중립 강박과 연결되거나, 의도치않게 안전한 자기 보존의 방법으로 연결되는 최근 서사들의 문제와 함께 더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15 자본의 입장에서 같은 착취의 대상이라고 해도 인간의 노동력(가변자본)과 달리 동물은 유동자본 혹은 고정자본이다. 전통적 마르크스주의자들도 동물은 무상으로 전유(착취)당하는 존재들일 뿐 노동력, 임금관계, 노동계급 등에 포함하지는 않는다.(제이슨 W. 무어, 김효진 역, 『생명의 그물 속 자본주의』, 갈무리, 2020, 159쪽) 하지만 최근 에콜로지 마르크스주의 혹은 동물권 담론(운동) 속에서 동물은 인간과 공동 생산하는 존재, 혹은 노동계급이나 노동력으로 간주되기도 한다.(이에 대해서는 生田武志, 『いのちへの礼儀』, 筑摩書房, 2019, 294-313쪽 및 로지 브라이도티, 이경란 역, 『포스트휴먼』, 아카넷, 2015, 94-95쪽.)

학사 전반을 관통하던 노동문학 속 노동의 표상과 지금 소설 속 노동의 장면은 적어도 노동 주체와 발화의 문제에 있어서 현격한 차이를 보인다는 사실이다. 적어도 한국소설이 골몰했던 노동의 문제는 표상(대표)이든, 개념이든, 의제든 이미 하나의 능선을 넘었고, 천정환의 말대로 “새로운 정세 속에서 (...) ‘사회적인 것’의 새로운 배치 속”에¹⁶ 다시 놓이게 된 것이 분명하다.

그렇기에 지금 다양하게 등장하는 ‘일’ ‘노동’ 소설들이, 과거 노동문학의 문제의식과 절합하는, 혹은 미끄러지는 지점과 그 조건들도 살펴야 한다. 기존 노동 표상으로 환원되지 않는 무수한 정념과 문제의식이 주제를 변주하지만 동시에, 노동을 조건지우는 시스템으로서 자본주의가 작동하는 한 양상은 달라도 핵심은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¹⁷ 어쨌거나 목하, 고된 노동이 아니라 존중받는 일을 내세우며 태세전환을 하는 자본, 그리고 과거의 규범적 노동 표상으로 환원되지 않는 무수한 일·노동의 현장을 그리고 있는 한국소설, 양측 모두 강조컨대 이 세계와 노동이 변화, 이행해온 상황을 각각의 방식으로 전유하고 있는 중이다.

지금 한국소설들이 자각적으로 선택한 ‘일’이라는 말과 현장들은 한편으로 스스로를 과거 노동, 노동문학과 변별시키면서도, 근대 자본주의의 노동이 늘 야기시켜온 모델의 문제와 그 속에서의 존엄을 희구하는 양상을 다양한 정체성, 위치성을 매개로 하여 보여준다. 소설 속 인물들은 어떤 일의 현장에서건 자기(라고 믿어지는 존재)를 잃지 않기 위해 분투한다는 점에서는, 앞서 언급한 구인구직 플랫폼 기업의 메시지도 같은 것을 골몰한다고 할 수 있다. “서로가 서로에게”

또한 엄밀히 말해 동물은 모든 것을 인간이 취하기 때문에 수탈의 대상이지만, 운동 전략상 노동이라는 말을 통해 동물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일이 많다.(2021년 1월 21일 ‘젠더정치연구소 여성연’ 주최 ‘자연화된’ 임신과 출산, 낯선 인간생산노동‘ 토론회에서 DXE 동물권 활동가 은영 님의 발언) 따라서 최근 비인간 동물, 생태에 대한 문제의식과 연동하여 쓰여진 소설들 중 소위 사역동물, 실험동물, 가축 등에 대한 이야기도 ‘노동’의 문제설정 방식을 달리한다면 충분히 노동 소설의 범주 내에서 이야기할 수 있고,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16 천정환, 「세기를 건넌 한국 노동소설: 주체와 노동과정에 대한 서사론」, 『반교어문연구』 제 46집, 반교어문학회, 2017, 131쪽.

17 예컨대 2020년부터 시작한 전세계적 팬데믹 상황을 겪으며 노동 안의 젠더, 인종, 세대, 지역 등 불평등 문제 뿐 아니라 기술낙관론의 허구(모순) 등이 더욱 가시화된 것은 다른 지면을 요한다.

시달리고 혐오하면서 서로를 “고객”이라고 여기게 만드는 극악한 세계(황정은, 「누가」, 2014), 이름 대신 ‘똥한 표정’의 여자아이로만 불리는 세계(장강명, 「알바생자르기」, 2015), 통근버스에서 아침햇살을 보는 것이 거의 유일한 좋음인 알바 소녀가장(권여선, 「손톱」, 2016), 월급을 포인트로 적립받으면서 “심장계의 무언가가 발밑의 어딘가로 곤두박질쳐지는 것만 같은 모멸감”을 승화시키는 세계(장류진, 「일의 기쁨과 슬픔」, 2018), 정규직 채용 전 건강검진을 받은 후 비로소 “존중받”는 느낌을 받게 하는 세계(장류진, 「백한번째 이력서와 첫 번째 출근길」, 2018), 그리고 일일이 나열하기 어려운, 약자간 연대할 수 없게 하는 소설 속 현장들과 거기에서의 안간힘을 생각해본다.

2010년대 한국소설 속 여러 노동의 자리에서 두드러지는 이 모멸-존엄 사이의 진자운동은, 노동이 서사화되는 자리마다 공통적인 경향이었다고 해도 될 것이다. 하지만 가령 1980년대 노동 서사와 다른 지금 서사의 결정적 차이는, 직접적으로 착취, 수탈하는 자본은 문면에서 잘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노동-자본 관계에 대한 작가 개인의 문제의식 여부 등으로 돌릴 수는 없다. 자본주의는 고정된 시스템이 아니다. 앞서 이야기한 바지만, 동원이나 착취가 아니라 인권과 노동권을 배려하는 인간의 얼굴도 오늘날 자본주의의 얼굴이다. 오늘날 자본주의적 생산 역시 이전과 같은 수직적 착취나 약탈로만 설명되지 않는다. 과거 자본주의 생산의 동력은 주로 대규모 산업의 노동착취에 있었지만, 지금은 종종 자본주의 스스로가 공통적인 것(사회적 노동의 협력)으로부터 가치추출(주로 금융, 기술적 수단을 통한) 한다. 구글, 페이스북은 익명의 유저들이 제공하는 주인 없는 데이터더미 없이는 존속할 수 없다. 오늘날 인간은 그 회로에 의식·무의식 중 공모되어 있다. 어쩌면 시스템은 더욱 압도적인 것이 되었지만, 거기에서 시스템과 ‘나’를 분리하기는 더욱 어려워졌다.

간단히 말해 오늘날 분야를 막론하고, 공모(협력)과 상호작용의 네트워크 속에서 더 많은 생산이 이루어진다. 이것은 반드시 인간 사이의 공동생산이 아니라, 인간 자연과 비인간 자연 모두에 의한 것을 포함한다. 공유경제 같은 말이 힘을 얻은 것은 자본주의가 이타적으로 태세 전환을 해서가 아니다.¹⁸ 소위 자연에 개

18 김미정, 「소유를 질문한다: 문학과 커먼즈(1)」, 『웹진 문화다』, 문화다북스, 2019.8.16.

입하여 그것을 변화시키며 무언가를 생산해내는 것이 노동 개념의 전통적 이해였다면, 지금 그 생산/재생산하는 노동은 더욱 우리 존재의 근거가 되고 있다.¹⁹

즉, 오늘날 한국소설 속 인물들은 그들이 어느 위치와 상황에서건 최소한의 자존감, 존엄이나마 지키고자 하는 안간힘을 보여주지만, 그것은 과거와 달리 그들의 일의 과정을 더욱 추상화한 세련된 시스템의 산물이다. 캐릭터가 그가 하는 일 혹은 시스템의 성격에 의해 좌우되는 양상도 이와 무관치 않을 것이다. 이런 사정을 잠시 2016-2019년 발표된 다섯 편의 소설(김혜진의 『9번의 일』, 장류진의 「일의 기쁨과 슬픔」, 김세희의 「가만한 나날」, 조해진, 「경계선 사이로」 「하나의 숨」)을 통해 좀더 살피고자 한다.

3 노동-자본, 인간-시스템의 피비우스 띠와 서사의 양상²⁰

우선, 김혜진, 장류진, 김세희, 조해진 소설 속 ‘일’의 장면으로부터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주제가 있다. 첫째, 일은 존재를 결정한다. 일종의 주체성 형성 장치로서 일이 사유되고 있다. 둘째, 일은 모멸감과 자부심 혹은 슬픔과 기쁨을 동시에 느끼게 한다. 혹은 현실의 모멸감이나 슬픔에도 불구하고 자부심이나 기쁨은 언제나 갈망되고 있다. 셋째, 일들은 모두 고도로 추상화(추상노동)되어있어서 존재를 소외시킨다. 이 주제 모두 과거 노동문학에서의 주제와 썩 멀지 않은 자리에 놓일 것이다. 그럼에도 이 소설들이 오늘날 노동-자본, 인간-시스템에 대해 보여주는 문제설정 방식의 특징은 각기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http://www.munhwada.net/home/m_view.php?ps_db=letters_vilage&ps_boid=42&ps_mode= (최종검색일 2021.4.22.)

- 19 A. 네그리, M. 하트가 『제국』(2002), 『다중』(2008), 『공통체』(2013), 『어셈블리』(2017) 등에서 내내 주장해온 것이 오늘날 이러한 생산의 이중성(dualism) 혹은 생산=존재론이기도 했다.
- 20 이 글에서 다루는 텍스트의 서지사항은 다음과 같다. 김혜진, 『9번의 일』, 한겨레출판, 2019; 장류진, 「일의 기쁨과 슬픔」, 『일의 기쁨과 슬픔』, 2019; 김세희, 「가만한 나날」, 『가만한 나날』, 민음사, 2019; 조해진, 「경계선 사이로」, 「하나의 숨」, 『환한 숨』, 문학과지성사, 2021.

3.1 시스템의 압도성, 인간의 패배: 김혜진의 『9번의 일』(2018)

김혜진의 『9번의 일』의 주인공은 26년 근속하던 회사로부터 모욕적으로 퇴직을 강요받고 있다. 그는 동료와 직장에 대한 신뢰를 통해 책임감, 소속감, 동질감 이상을 확인하며 살아왔지만, 회사는 그 신뢰를 쉽게 망가뜨려버린다. 그를 둘러싼 세계는 압도적이고 그는 속수무책 과국으로 치달는다. 그는 “타인이 결코 짐작할 수 없는 성취와 감동, 만족과 기쁨, 즐거움과 고마움의 순간들”이 각자의 일과 삶에 있을 것이라는 믿음의 소유자이지만, 점점 내몰리게 되면서 스스로가 감정과 생각을 가졌다는 것을 잊어야 살아남을 수 있다는 위악을 체현하고, 결국 26년 사이 변화한 세계의 원리에 패배한다.

소설은 어떤 일을 하면서 “자신이 어떤 사람으로 바뀌어버리는지” 비극적으로 서사화한다. 마을을 파괴하고 약자끼리 다투게 하는 일에 개입하며 생존을 도모하지만 그 결과는 공멸일 뿐이다. 자부심을 가지고 일에 고투해도 생존을 위해서는 스스로의 의지와 무관하게 회사(시스템)의 부품이 되어야 한다. 여기에서 앞서 언급했듯, 노조로 대표되어왔던 신뢰와 연대의 공동체는 이미 사측과 등가적인 위치를 점할 뿐, 사안은 개별화되고 비극으로 치달는 대목들이 주의를 끈다.

이때 “사는 동안 그는 단 한 번도 어느 한쪽으로 완전히 기울어진 적이 없었다. 객관적이고 현실적이어야 한다는 강박은 내내 그를 그림자처럼 따라다녔다. 어느 쪽도 아닌 중립을 지키려고 했고 어떤 순간에도 균형을 잃지 않으려고 애썼다.”라고 묘사되는 주인공의 성격은, 소설 속 기존 노조 표상의 전형성을 깨는 것의 알리바이처럼 읽힌다. 잠시 잊기 쉬운 것이지만 주인공이 자신의 일에 집착하는 것도 사실은 노후 대비 부동산의 욕망에 편승한 뒷감당과 관련된 설정으로 그려져 있다. 따라서 노조가 사측과 등가적으로 그려지는 듯한 소설 속 장면도, 주인공의 캐릭터와 관련되는 정합성을 지닌다.

그런데 이런 캐릭터 형상화나 노조에 대한 묘사 등은 어쩌면, 어떤 존재나 사안을 기존 익숙한 표상이나 서사로부터 이탈시키려는 객관화의 강박과도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마치 전형성이 곧 타자화나 대상화로 여겨지는 듯도 하다. 어딘가에 치우치지 않으려는 포지션이 안전하게 여겨지는 듯한 최근 한국소설의 경향을 떠올릴 때, 이것은 별도의 주제로 이야기할 것이 있다. 소설 밖 실재하는 구조

적, 제도적 역학관계가, 중립적 거리두기, 감정이입을 차단하는 서술 속에서 오히려 착시를 불러일으키거나, 소설 밖 또 다른 정동·표상(예컨대 노조 혐오)과 교착하기도 쉽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자면, 오길영은 장류진, 김혜진의 소설들을 다루며²¹ “일의 소외, 노동의 소외 양상은 더 심해졌”지만 이 소설들에서 “저항의 양상”이나 “소통과 연대의 정서는 거의 찾기 힘들”고 “고립된 단자론(單子論)의 세계”만을 보여준다고 비판한 바 있다. 특히 김혜진의 소설에 대해서는 “그 사태를 바라보는 주인공의 반응과 태도”는 미덕으로 보면서도 “노동-자본의 관계를 사유하는 것을 포기했거나 그런 관계를 따지는 것이 실효성을 상실하지는 않았는지” 질문하고 “무력감의 징후”를 발견한다. “고통스러운 노동자의 삶을 표현”하는 것을 넘어 “고통의 근원에 다가가는 것은 두려워한다”고 그는 말한다.

일·노동의 문제를 그릴 때 그것의 압도적 조건이 되는 자본주의를 사고하는 것은 중요하고 어찌면 핵심이다. 실제로 일·노동의 문제에 골몰할 때, 그 조건을 마련시킨 자본주의의 문제나 현실에서 체감되는 무수한 부조리들을 기피하기란 쉽지 않다. 그런데 오길영의 말처럼 지금 소설들 속에서 노동의 조건에 대한 정치경제학적 사유는 확실히 필수사항은 아닌 듯 보인다. ‘자본주의 리얼리즘’²² 식 비판에 썩 반박하기 어려워도 보인다. 대신 이러한 소설 안팎의 경향을 둘러싸고 소확행, 율로, 워라벨, 뉴노멀 같은 트렌드 분석, 마케팅의 언어를 통한 분석은 드물지 않았다. 하지만 그 자체가 현상과 네이밍을 전도시키는 일이 되기 쉽고, 사람들의 행위와 욕망을 규정짓는 가스라이팅의 언어로 작동하기도 쉽다는 점에서 오길영의 비판은 정공법적이고 필요한 것이기도 했다.

3.2 공모의 조밀한 회로와 생존 테크놀로지로서의 활기

: 장류진, 「일의 기쁨과 슬픔」(2018)

21 오길영, 앞의 글. 이러한 그의 입장은 같은 시기 발표된 김세희의 소설들에 대해서도 비슷하게 견지된 바 있다. 오길영, 「합당한 수상작인가?: 김세희 소설집 『가만한 나날』과 이소호 시집 『갯콜링』, 『황해문화』통권105호, 새얼문화재단, 2019년 봄호, 405-419쪽.

22 마크 피셔, 박진철 역, 『자본주의 리얼리즘』(리시울, 2018) 전체를 관통하는 문제의식이다.

하지만 과거의 프레임과 준거를 통해 이런 소설들을 ‘세대소설’ ‘사회소설’이라고만 단언하기에는 더 읽어야 할 것이 있어 보인다. 우선 그것을 작가 개인의 성취와 실패로 돌릴 수 있을지 생각해본다. 미리 적어두건대, 이것은 개인의 책임을 면제시키고 시스템을 악마화하는 식도, 구조로부터 자유로운 개인의 행위성만을 강조하는 식도 아니다. 단지, 배타적 태일의 문제로 접근할 수 없는 시대의 조건을 살펴야 한다는 이야기이고, 미리 더 말하자면 오늘날 개인과 시스템이 자연스레 공모되는 회로의 양의성(비관/잠재성)과 그 전유 가능성까지 잘 살펴야 한다는 말이다.

그런 의미에서 장류진 소설도 생각해본다. 장류진의 「일의 기쁨과 슬픔」 속 일의 세계는 강지희의 말처럼 “윤리적인 지점을 초과하는 미묘한 활기”²³가 있다. 그녀가 말한 ‘활기’가 흥미로운 것은, 김혜진 소설에서와 같은 잔혹한 리얼리티가 보이지 않기 때문이 아니다. 오히려 일종의 팝진한 리얼리티가 이 소설에는 있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일의 비애와 모멸을 현실적으로 능수능란하게 조정하는 사람들의 세계가 있다. 가령 주인공은 음악이 흐르는 이어폰을 꽂고 사무실의 스트레스를 차단한다. 또한 연차를 끌어쓴 휴가를 이용해 해외 공연을 예매하며 일의 현장과 스스로를 분리한다. 또 다른 주인공(거북이알)은 사무실을 나서는 순간부터 회사 일은 “머릿속에서 딱 코드 뽑아두고” 거북이에만 몰두한다. 그녀들에게 모멸은 잘 관리하며 쉽게 승화시켜야 할 것일 따름이다. 정념은 쉽게 휘발시켜야 일상을 영위할 수 있다는 듯 말이다.

심지어 회장의 SNS보다 먼저 공지를 올렸다는 이유로 승진이 취소되고 다른 팀으로 발령받은 이는 “뭐, 좌천되거나 그런 건 아니었어요. 여기도 그렇게 할 일 없는 부서는 아니거든요. 오히려 카드사의 메인 업무고, 그때까지만 해도 이 기회에 새 업무 해보다 생각하자, 싶었어요.”라며 재빨리 모드전환을 한다. 또한 월급을 포인트로 받게 되는 상황에서 “굴욕감에 침잠된 채로” 밤을 지새우며 “이미 나라는 사람은 없어져버린 게 아닐까” 하면서도 금세 “이상하다는 생각을 안 해야 해요. 그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 머리가 이상해져요.”라고 상황을 빠르게 추수,

23 강경석·서영인·강지희·이철주 좌담. 「새로운 작가들의 젠더 노동 세대감각」, 『창작과비평』제47권 제1호(통권 제183호), 창비, 2019, 264-292쪽.

재가공한다. 나아가 포인트를 돈으로 환산하여 결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통해 불행한 상황을 역전시키고, 그 과정에서 그 시스템에 관계한 사람(주인공)을 만나 일상의 소소한 휴식과 동질감을 나누기도 한다.

강조컨대 이 소설이 흥미로운 것은 김혜진의 『9번의 일』처럼 냉혹한 경쟁 질서에 의해 파괴되는 노동의 서사와 달라서만은 아니다. 또한 그 시스템의 원리를 쉽게 수락하고 오히려 능수능란하게 이용하는 인물들과 서술자(작가)의 거리가 보이지 않아서만도 아니다. 인물-서술자(작가) 사이의 거리가 잘 안보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 소설이 의도치 않았을 것들이 독자에게 보인다. 인물들의 처세/응전 과정을 잘 들여다보면, 주인공들의 능수능란한 테크놀로지처럼 보이는 것은 그들의 능동적 선택이나 의지에 의한 것이라기보다 실은, 시스템이 마련해둔 테크놀로지와 회로 속 결과이기도 하다.

월급 대신 적립된 포인트는 분명 더없는 굴욕, 불합리, 노동권 침해다. 하지만 그 포인트를 화폐화할 수 있는 시스템과 방법은 이미 동시에 갖추어져 있다. 그리고 그 방법에 능통한 이에게 굴욕은 타협적으로 휘발될 수 있는 것이 된다. 이것은 소설 밖 자연화한 일상의 일이기에 잘 보이지 않을 수도 있다. “미묘한 활기”는 패널리티와 보상을 자유자재로 구사하는 시스템과 공모되어 있는 자신의 조건을 간파한 자의 가면이다.(그런데 종종 위악도 악이고 가면도 얼굴이다.) 이때 그녀의 일은 고전적 착취, 수탈, 소외만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성격의 노동이다. 그리고 이것이 오늘날 소설 밖 무수한 일·노동의 성격이다.

하지만 여기에서 인물-서술자(작가) 사이 거리 혹은 미끄러짐이 잘 보이지 않는 점이 이 소설을 단순한 세대 반영소설처럼 보이게 한다. 자각적이거나 의도된 설정이 아니지만 설정 자체가 이 세계의 회로를 가늠케 한다는 점에 이 소설 혹은 이 시대의 아이러니가 있다. 앞서 언급한 오길영의 최근 한국소설에 대한 문제제기는, 단순히 세대나 젠더의 위치성의 차원에서만 읽을 수 없는 중요한 지점이 있다. 노동의 문제가 늘 자본의 구조와 연동되어온 엄연한 사실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소위 시대착오적 거대담론으로 기피해 온 사유의 관습이 오늘날 문학의 양상 속에서 어떤 늦음, 혹은 미끄러짐으로 드러나는지도 모른다. 이에 대해서는 주제와 지면을 달리해야 할 것이다.

3.3 부드러운 전제(專制)와 통제·제어사회에서 자연화하는 무기력 : 김세희, 「가만한 나날」(2018)

한편, 김세희의 「가만한 나날」 역시 앞의 두 편의 소설 속 일의 성격을 공유한다. 여기에서도 인물의 캐릭터와 처세가 먼저 두드러지고 그것과 주인공-서술자(작가)의 거리가 역시 다소 모호하다. 주인공에게 일이란 우선 성취감, 능력과 관련된다. “20대 중반까지는 돈을 지불하고 뭔가를 학습하고 받아들이기만 했다. 그런데 이젠 돈을 내는 것이 아니라 받았고, 내 머리와 손끝을 써서 뭔가를 생산해냈다. 그 느낌이 너무 좋았다. 쓸모 있는 존재라는 느낌”이 들었다는 구절처럼, 주인공에게 일이란 “성취감” “프로” “능력” 등과 관련된다. 한편, 주인공과 달리 일을 잘 못한다고 평가받고 주눅들고 눈치만 살피다가 퇴사하는 인물(예린)도 있다.

주인공은, 그녀에 대해 일을 못해서 쫓겨나는 것은 당연하다고 우월감을 느끼기도 한다. 자연화한 능력주의와 모멸의 구조는 젠더, 세대적 동질감도 냉정하게 균열내며 작은 사무실 안에서도 조밀하게 작동한다. 그런데 여기에서도 인물과 서술자(작가) 사이의 일체감이 소설의 의증을 모호하게 하는 측면이 있다. 물론 이 일체감은, 일이라는 것이 어떻게 존재의 의지와 무관한 결과를 가져오는지, 혹은 버전업하는 자본주의 하에서의 노동이 어떻게 사람을 주조해가는지 메커니즘을 보여준다는 점에서는 설득력이 있다.

주인공은 “나는 스스로 기계라고, 다이얼을 한 칸 돌리면 다른 채널로 바뀌는 머신이라고 중얼”거리면서도 자부심과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블로그 바이럴 마케팅 일을 한다. 그리고 생각지도 못한 방식으로 타인의 비극에 자신의 일이 연결되었음을 알게 된 후 고민이 시작되고 복잡한 감정에 휩싸이는 과정이 소설의 주요 갈등축이다. 요약하자면, ‘그저 마케팅 조직의 분담된 역할에 충실했던 나의 일이 누군가의 불행과 관련되었음을 알게 되었을 때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이 이 소설을 가로지른다. 그리고 소설의 마지막은 이렇게 끝난다. “그 곳을 나온 이후 나는 『채털리 부인의 연인』을 읽을 수 없게 되었다. 책장에 꽂혀 있으나 어쩐지 펼쳐 볼 마음이 일지 않는 책. 나는 어디에서도 『채털리 부인의 연인』을 좋아한다고 말하지 않는다. 나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

“나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라는 말은 이 소설 전개상 정합적이다. 또한 무기력한 죄책감처럼 보이는 것이 맞다.²⁴ 하지만 여기에서 비로소 소설 속 캐릭터의 입체성과 서술자(작가)의 거리(자기성찰)가 확보된다. 그렇기에 이 소설에서 더 읽어야 할 것이 있다면, 주인공이 열심히 자부심을 가지고 한 일이 그녀를 어떤 존재로 만들고 주조하는 과정일 것이다. 애초에 주인공은 일하고 있다는 자부심과 성실함에 도취되어 그것이 어떤 맥락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생각하지 않았다. 그리고 사건이 발생한 후에야 자신의 일이 어떤 의미였는지 가늠하게 된다. 복잡한 심경을 동료(팀장)와 공유해보려 하지만 그 시도는 이내 차단된다.

이런 폐쇄적 서사는 평범한 주인공의 직장과 그녀의 업무가 설명해줄 수 있을 것이다. 주인공이 지금 하고 있는 일, 업무는 합법적이고 정당하다. 하지만 소설 속 바이럴 마케팅 업무가 상징하는 것은 명백하다. 이 시스템은 사람의 욕망을 자유롭게 공모시키면서 그 시스템 안에서 서로의 연결을 추상화한다. 그 시스템은 명령, 강제, 금지로 작동하지 않는다. 상호 동의와 자발성과 행위에 기대어 작동하지만 선택지는 일정하게 회로화되어 있다. 문제는 이것이 소설에서처럼 결정적인 상황일 때, 책임 소지가 누구에게 있는지, 개인의 책임을 어디까지 물을 수 있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가리기 어렵게 만든다는 것이다.

이때 나의 자유로운 노동이 자유롭지 않았음도 알게 된다. 하지만 단순히 시스템의 탓만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된다. 누구든 자칫하면 사무실의 아이히만이 될 수 있다. 즉, 일의 과정과 목적과 결과를 점점 추상화시키고, 존재를 소외시키는 세계를 이 소설에서 읽게 된다. 이 소설은 점점 더 부드러운 전제(專制)에 공모되게 하는 (1980년대 후반 들뢰즈, 가타리가 통제·제어(control)사회라고 말했다²⁵) 오늘날 세계에 대한 알레고리처럼 읽을 수도 있다. 앞서 장류진의 「일의 기

24 오길영, 앞의 글.

25 통제·제어(control)사회는 근대적 훈육·규율(discipline)의 원리와 반드시 배치되는 것만은 아니다. 그 둘은 대체의 원리가 아니라 오늘날 동시적으로 작동한다. 기술적 조건과 자본주의의 통치술이 정교해지는 가운데 최근 비로소 일상의 감각 속에서도 체감되어가고 섬세하게 의제화되고 있다. 그 원론적 논의에 대해서는 질 들뢰즈의 1980년대~1990년대 저작들, 브라이언 마수미, 조성훈 역, 『정동정치』, 갈무리, 2018; 마우리치오 랏짜라토, 이성혁 역, 『사건의 정치』, 갈무리, 2018; 조정환, 『인지자본주의』, 갈무리, 2013 등 참조.

뽕과 슬픔」속 세계와 같은 시스템과 회로를 갖는, 그러나 다른 처세, 응전의 세계라고 읽을 수 있다.

이 소설은 서술자와 인물 사이 성찰적 거리가 확보되어 있다는 점에서 다루고 있는 제재에 대해 자각적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신자유주의적 능력주의를 내면화한 여성의 서사가 좌절되는 장면들은 오늘날 성공하는 여성 서사에 대한 대중의 갈망을 반성적으로 점검케 하는 측면도 있다. 하지만 이 세계의 가동 원리를 알지르거나 혹은 넘어서는 상상력까지 적극적으로 작동시키지 못할 때 그것은 자주 폐쇄회로 안의 무기력한 반성 서사로 그칠 수 있다. 어쩌면 지금 한국문학에서의 재현이 단순한 반영 혹은 모방으로 환원되는 경향성도 이러한 서사화와 관련되는 것인지도 모른다.

3.4 이종구속의 시스템, 그러나 다른 조건을 발견하는 사람들 : 조해진, 「경계선 사이로」(2019) / 「하나의 숨」(2019)

조해진의 「경계선 사이로」는 다른 조금 다른 의미에서 문제작이다. 이 소설은 오늘날 일·노동 안의 분할, 그리고 사람들 사이 낙인/갈등의 기원을 예리하게 보여준다. 표면적으로 이 소설은 신문사 기자 파업 기간 동안 대체인력으로 들어간 주인공과 파업 중인 선배들 사이의 갈등에 대한 이야기다. 선배들은 후배들과 거리를 두고, 주인공은 모멸감과 도덕적 열등감 등 복잡한 감정에 휩싸인다. 수습기자가 되면서부터 생긴 낙인에 주인공은 괴로워한다.

한편, 이 소설에는 두 개의 일·노동이 등장한다. 첫 번째는 청소용역 중년여성 노동자의 일·노동이다. 주인공에게 영향을 준 선배 윤희가 기자가 된 것은, 그녀 어머니의 치욕스러운 죽음과 관련된다. 누군가 자신의 일터에서 사망하더라도, 그것이 쉽게 산재 승인을 받지 못한다는 것은 결코 소설적 과장이 아니다. 일터에서의 죽음을 개인 탓으로 전가하는 시스템은 이 세상의 노동과 삶을 치욕스럽게 만드는 유력한 용의자다.

소설 속 또 하나의 일·노동은 앞서 말했듯, 신문사 내의 분열적 상황이다. 예컨대, 해직 기자 복귀 후 대응을 위해 수습 출신 기자들이 모여있는 장면을 보자. 후배들은 선배들이 복귀하면 자신들이 오히려 시위를 해야 할 수도 있는 상황을

맞는다. 하지만 애초에 그들은, 노조와 무관할 것이며 시위 동참도 하지 않겠다는 계약서를 쓰고 입사했다. 이들은 모이는 일조차 자유롭지 않다. 이들을 기회주의자, 무임승차라고 비난하기는 쉽지만, 정작 이들은 시작부터 자신을 보호할 기제를 제대로 가지지 못했다. 선택지가 한정된 그들에게 비난의 말은 공허하다. 정작 겨누어야 할 것은 늘 다른 곳에 있었다. 시스템이 만들어 놓은 링 안에서 사람들은 다투고, 시스템은 링 바깥에서 뒷짐을 지고 있는 형국이다.

반복컨대, 오늘날 많은 소설의 캐릭터가, 그가 하는 일 혹은 그가 처해 있는 시스템의 성격에 좌우되는 경향이 있다. 그런데 조해진 소설은 조금 다른 것이다. 인물들의 곤혹스러운 부대낌을 그대로 보여주되, 실패할지라도 어떤 사유와 행위의 주인이 되려고 하는 이들이 거기에는 반드시 있다. 이 소설에서도 자발적으로 퇴사한 선배 윤희나 그녀의 퇴사 이유에 골몰하는 주인공은, 결코 시스템으로 환원될 수 없다.

한편 「하나의 숨」은 청소년 취업과 산업재해를 제재로 한다. 이 소설은 고등학교를 졸업한다고 하여 모두가 대학생이 되지 않는다는 명백한 사실을 새삼 상기시킨다. 힘들고 어렵다는 일의 현장에 누가 있고, 산재나 그것을 둘러싼 무책임한 공방이 왜 망각되는지 보여주며, 계약직, 임시직 같은 일의 성격이 우리 삶에 관여하는 장면들을 섬세하게 보여준다. 나아가 「하나의 숨」은, 짧은 계약직 노동 관계 속에서도 생겨버리는 정서·정동적 관계를 과연 계약서가 종료시킬 수 있을지 질문한다. 소설 속 사람들은 관계를 멈춰두고 중지하지만, 그것은 그들이 침착하거나 냉정해서가 아니다. 그들은 계약과 관련된 서로의 사정을 조금씩 짐작한다. 서로 부담을 주지 않으려는 조심스러움이 서로를 멀어지게 하고 어느새 관계도 종료된다. 먼 곳에서 그저 마음으로 헤아리고 궁금해한다. 이것은, 계약서에 명기된 노동의 기한이 곧 관계의 유통 기한이 되는 시대의 배려법이다.

오늘날 변했지만 변하지 않았고, 세련된 외피 너머에서 더 안 좋게 변한 일의 현장은 많다. 시스템과 그 안의 사람들이 피비우스의 띠처럼 공모되기 쉬워진 오늘날의 일·노동의 조건을 생각할 때, 그 심연까지 들여다보지 않으면 그저 사람끼리의 아등바등만 도드라지기 쉽다. 수락, 회의, 냉소는 간편하다. 하지만 「하나의 숨」은 노동 자체를 위해 인간이 소용·소외되는 비참만 보여주고 끝나지 않는다. 계약서와 무관하게 이 존재들끼리 연결되는 또 다른 명백한 조건들이 소설에

서는 기어이 발견된다. 예컨대 우리가 함께 내쉬고 있을 숨은 결코 사유화, 영토화될 수 없다. 공기를 구획하여 가둘 수 없듯, 우리가 서로 내쉬는 숨도, 사람 사이의 정서·정동적 관계도 자르거나 가둘 수 없다.

즉, 오늘날 삶과 일·노동의 문제를 이야기할 때 무구한 활기, 시스템에 압도되는 캐릭터 등과는 다른 방식으로 그 폐색성을 돌파한다는 점이 「하나의 숨」의 특징이다. 이 점을 주목하는 것은, 최근의 일·노동 관련 다른 소설들과 달리 이 소설의 주제가 곧 관계적 존재론 혹은 관계적 노동론의 사유 가능성을 제시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강조한 바지만, 오늘날 노동이나 생산이 자본과 맺는 관계는 일방적이지 않고 점점 더 부드러운 전제(專制) 상황에 공모 속에서 이루어진다고 할 때, 거기에서 역으로 공통적인 것(communs)의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재전유하고자 한 이들의 논의도²⁶ 이 방법과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요컨대, 주어진 이 세계의 조건과 회로 너머에 대해 가까스로나마 상상할 수 있도록 이끄는 측면이 이 소설에는 있다.

4 다시, 인간의 조건

: 향후 서사 속 일·노동의 문제설정 방식 전환에 대한 단상

김세희 「가만한 나날」의 마지막 문장 “나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의 형식은, 비판과 가능성 모두를 포함하여 한국의 일·노동 소설의 현재 단계를 암시한다. 나의 자유가 누구의·무엇의 자유일지, 내가 자연화한 것은 무엇의 효과일지, 괴로운 일은 왜 해야 하는지, 일하지 않는 것을 선택할 수는 없을지, 내가 하는 일로부터 되도록 소외되지 않고 소위 인간다움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지, 그런데 그 인간다움이란 것은 대체 무엇인지 등등, 이전 문학 속 일과 노동의 현장이 늘 질문해왔지만 이 소설들 주인공과 그의 근심, 죄책감은 지금 일·노동 서사의 평균적 감수성을 의미할 것 같다.

26 A. 네그리, M. 하트가 오늘날 ‘바깥’ 없는 시대의 상황을 분석하며 재전유해은 ‘삶노동’ ‘삶정치적 생산’ 개념을 통해 관계적 존재론, 관계적 노동론에 대한 사유를 시작해볼 수도 있겠다.

하지만 같은 상황에서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도 있는 반면, 그러지 않는 사람도 있다. 어떤 가치-행동의 회로가 이미 마련된 상황에서 선택과 행위는 구속력을 떨치기 어렵다. 하지만 먼저 간파해버리고 또 떨치는 사람도 있다. 또한 회로는 주어졌을지언정, 교섭이나 처세/응전은 늘 복잡하고 다양하며, 아예 다른 상상으로부터 출발할 수도 있다. 지금까지 살핀 소설의 폐색성이나 캐릭터 특징은, 궁극적으로 근대적 인간관, 노동관의 전제를 질문하고 문제설정 방식을 달리 하면서 다른 모색을 해볼 수도 있겠다는 말이다.

즉, 지금까지 살폈듯 오늘날 세계의 조건은 각자를 시스템과 더욱 부드럽게 공모, 연루시킨다. 소위 견고한, 주체적, 능동적이라고 상정된 근대적 ‘개인(individual)’의 양태로 존재하기 어렵게 만든다. 정치경제적·사회적·생태적 격변과 부침 속에서 우리는 점점 더 (비유, 상징이 아니라) 실제로 불안정하고 취약한 존재가 되고 있다. 한편 2010년대 중반 이후 내내 페미니즘의 문제의식을 경유하면서 누가 보편이고 정상 인간인지에 대한 질문이 이어졌다. 모두가 다빈치의 인체도 속 모델 같은 존재일 수 없다는 것을 다시금 알아차렸다. 본래 인간이라는 존재가 늘 자유롭고 능동적이며 어떤 사유와 행동의 선형적 주체로서 놓여있지 않다는 것이 환기되고 있다. 그렇다면 전적인 개인의 자유와 능동성이라는 것이 더욱 제약받는 앞서 소설에서 살핀 객관현실은 비관적일지라도, 한편으로 그것이 근대적 이념형이었다는 사실을 동시에 떠올리면, 아예 다른 관계성과 존재론을 상상해야 할 필연성과 만나게 된다. 그리고 이런 의미에서 마지막으로 다룬 조해진의 일·노동 소설들의 중요함을 다시금 상기할 수 있다.

최근 한국문학에서의 ‘일·노동’이 제재 혹은 주제로서 다시 주목받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문제는 단순한 반영의 차원을 넘어서 그것을 어떻게 다시 조망하고 이야기할 것일지의 문제다. 이른바 노동에 대한 문제설정 방법이 더욱 중요해진다. 이 글이 우선 주목한 것은, 식민지 시기 노동소설로부터 1980년대 노동소설에 이르기까지의 압도적인 노동담론과 대비되는 최근 여성 작가들의 일·노동 서사였다. 즉, 한국문학 속의 일·노동이란 그 자체가 남성젠더화 되어있었기 때문에 여성작가의 일·노동 서사 혹은 여성인물의 일·노동 서사를 주목하는 것 자체가 일종의 출발일 수 있었다. 시민으로서의 노동자라는 측면에서 이것은 피할 수 없는 점검의 과정이기도 했다.

그런데 한편 여성의 일·노동의 문제란, 오랜 시기 여성에게 할당되어온 가령 ‘돌봄’ ‘재생산노동’의 문제를 재구성하는 것과 무관할 수 없다. 돌봄은 여전히 결코 욕망되거나 지향되는 일의 종류는 아니다. 또한 돌봄은 가까스로 노동의 지위를 획득하기는 했으나, 임금노동 중심의 노동에 온전히 환원될 수 없는 복잡성을 지니는 활동이기도 하다. 이런 문제의식과 직접 관련하자면 당장 한국소설 담론 속 ‘돌봄’ 논의²⁷의 중요성도 언급해야 할 것이다. 가사, 돌봄, 감정 노동 등을 포괄하여 돌봄의 문제는 앞서 언급한 한국노동문학 뿐 아니라 전통적 노동의 범주에서 제외되어온 대표적 노동이다. 1960,70년대 서구 페미니스트들이 전개한 가사노동 임금투쟁은 우선은 재생산노동이 자본주의 관계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재생산노동 그 자체가 자본주의-가부장주의를 유지하는 필수불가결한 동력이었음을 밝히는 것에 있었다. 가사노동 임금투쟁은 그것의 상징적 투쟁전략이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녀들의 투쟁이 결국 임금체계로 온전히 환원될 수 없는 돌봄, 재생산의 특수성을 환기시켰고, 나아가 자본주의의 가치체계를 근본적으로 질문했다는 사실이다.²⁸ 가사노동을 궁극적으로 임금체계로부터 이탈시키기 위한, 즉 자본주의 관계를 거절하고자 하는 그들의 투쟁은 시민권 요구였지만, 궁극적으로는 시스템을 이탈하고 다른 가치의 세계를 재구축했다는 데에서 지금 적극적 의미를 발견, 재활성화시켜야 할 것이다.

또한 사적 영역에 할당되면서 공적인 영역에서는 늘 평가절하되어온 돌봄의

27 불가능성과 한계를 포함하여 최근 한국문학에서의 ‘돌봄, 노동, 공동체’의 문제에 대해서는 다음의 글들을 참고할 수 있다. 신선헌, 「불평등 서사의 정치적 효능감, 그리고 ‘돌봄 민주주의’를 향하여」(『창작과비평』 제48권 제2호(통권 제188호), 창비, 2020, 34-54쪽); 백지연, 「생명, 노동, 돌봄의 문학」(『창작과비평』 제48권 제4호(통권 제190호), 창비, 2020년 겨울); 이지은, 「재생산노동력의 상품화와 여성 연대의 곤경—장류진, 「도움의 손길」에 부치는 주석」(『문학동네』 제26권 제4호(통권 101호), 문학동네, 2019년 겨울); 이지은, 「여성 연대의 (불)가능성의 지점들」(『문학동네』 제27권 제4호(통권 105호), 문학동네, 2020년 겨울)

28 실비아 페데리치, 황성원 역, 『혁명의 영점』, 갈무리, 2013; 마리아 미즈, 최재인 역, 『가부장제와 자본주의』, 갈무리, 2014; 마리아로사 달라 코스파, 이영주, 김현지 역, 『페미니즘의 투쟁』, 갈무리, 2020.

영역은 애초 의존성, 상호의존 개념이 결여된 서구 자유주의 정치상의 시민성 개념—즉, 심신 건강, 개체, 자립, 능동, 존엄, 남성, 이성애 중심 가족 등—이 지지해 온 것²⁹과 관련이 깊다. 즉, 오늘날 돌봄의 문제는 노동의 문제인 동시에, 심신 건강, 개체, 자립, 능동, 남성, 이성애 중심 가족 등에 근거해온 근대의 인간관, 노동관을 질문할 때 중요한 아이디어를 제공한다. 이것이 ‘돌봄’을 ‘노동’으로 편입시키는 것 자체만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될 이유이기도 하다.

즉, ‘생산’의 형태로 기여를 하지 않는/할 수 없는, 또는 그 차이를 존중받아야 할 무수한 존재들이 그저 이곳에 있다는 것, 살아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존중받을 수 있음을 기억하는 것은 중요하다. 어떤 존재를 생산성과 쓸모와 기여도와 가치 등으로 평가하지 않고, 존재 그 자체의 역능을 존중한다는 것은 지금 일·노동을 근원적으로 생각할 때 핵심이어야 할 것이다. 일·노동은 골방에서 혼자 하는 무엇이라고 해도 늘 누군가·무언가와 연결되는 것이고, 필연적으로 관계에 대한 상상을 수반한다. 문학과 일·노동, 문학 속의 일·노동이라는 주제가 페미니즘의 문제의식을 경유한다면, 궁극적으로 그런 것을 상상할 수 있게 하는 말들을 고안하고 발명하는 것이 되어야 할 것이다.

오늘날 우리의 정체성은 노동자=소비자=자본가(자기사업자)의 동시성으로 설명해야 할 때가 많아지고 있다. 기술의 발달과 노동의 종말이 자주 상상되지만, 기술로 해결할 수 없고 외주화할 수 없는 노동의 자리도 무수히 많다. 노동할 수 있음은 시민의 징표처럼 여겨진다. 여전히 저항과 투쟁으로 가까스로 얻어내야 할 권리의 문제도 많다. 일할 수 없고 생산할 수 없고 기여할 없다는 이유에서 노동할 수 없는 이들을 떠올리면 노동은 분명 시민권의 문제다. 하지만 더 근본적으로 노동은 인간을 해방시켜 주는 것이 아니라 노동으로부터 인간이 해방되어야 할, 즉 시민권 너머의 문제로까지 상상될 수 있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이 글에서 다루는 작품들 너머의 문제의식을 덧붙이며 마무리 하고 싶다. 요컨대, 일·노동이 모멸 vs. 존엄, 혹은 동물 vs. 인간, 혹은 그저 태어난 목숨(zoe) vs. 살 가치가 있는 삶(bios) 도식 속에서 내내 유동해온 사정과,

29 캐슬린 린치 외, 강순원 역, 『정동적 평등: 누가 돌봄을 수행하는가』, 한울아카데미, 2016, 4장.

그것에 대한 문제제기다. 예컨대, 한나 아렌트의 『인간의 조건』 서론은 “1957년에 인간이 만든 지구태생의 한 물체가 우주로 발사되었다.”라는 문장으로 시작한다. 1957년 스푸트니크호 발사가 이 책에 어떤 동기를 부여했을지 가늠해볼 수 있게 된다. 인간이 제작한 무언가가 그때까지의 인간을 초과하는 장면에 대한 경외감이자, 그 제작물(work)이 바뀌낼 인간의 조건과 인간에 대해 예감하는 흔적을 생각해볼 수 있다. 이어 아렌트는, 노동(labor), 일·작업(work), 행위(act)를 구분하고, 근대가 되며 노동은 인간 활동에서 가장 중요한 지위를 획득하게 되었다고 보았으며, 이러한 조건에서 근대의 인간은 생계유지를 위해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노동하는 동물’이 되었다고 비판한다. 요컨대 아렌트는, 모든 자유로운 활동의 과정과 결과가 ‘생계유지’ ‘생존’을 위한 ‘노동’으로 축소된 것이 근대세계 인간의 조건이라고 했고, ‘노동’과 ‘작업’은 모두 ‘행위’를 통해서 정치적, 활동적 삶(vita activa)을 회복할 수 있으리라 보았다.³⁰

사실 이 ‘노동하는 동물’이라고 지칭된 문제를 둘러싸고 근대 이래의 일·노동 문제의식은 전전반측해온 셈이었다. 인간의 육체적 노동이 재평가되고, 생산노동의 가치가 결정적인 것이 되는 것은 (마르크스가 아니라) 로크의 노동가치설 주창 이후다. 그리고 주지하듯 아담 스미스, 헤겔을 거치며 노동(labor)은 이른바 고전적 자유주의의 중심과제가 되고 근대적 시민 교양 형성의 주된 요소가 된다. 노동에 결정적으로 가치가 부여되는 역사의 변화 속에서 드디어 노동은 인간을 인간답게 하는 불가결한 활동으로 등극하게 되는 것이다. 노동가치설을 둘러싼 변화가 곧 ‘생산노동을 담당하는 주체=사회를 형성하는 주체’로 상징하는 근대사회의 성립을 가능케 했고, 이때의 노동은 고행이면서도 한 사회와 노동주체를 형성하는 의미를 지니게 되었다.

하지만 이어 마르크스가 고투했던 바지만, 산업혁명을 거친 공장노동 중심의 산업구조는 노동을 고행으로 추락시키고 이른바 ‘소외된 노동’이 문제가 된다. 노동자가 자기 노동의 산물로부터 소외되고, 전체 노동과정에서 소외되며, 단순한 임금노동자 부품으로 전락하게 되는 것이 바로 마르크스가 주력했던 노동의 문제였고, 아렌트가 인간의 근대적 핵심 조건으로 본 것이었으며, 지난 세기

30 한나 아렌트, 이진우, 태정호 역, 『인간의 조건』, 한길사, 1996, 2-3장.

노동운동과 담론이 주력한 지점의 하나이기도 했다. 그렇기에 과거 한국의 노동 문학이 지향한 것은 인간다움과 존엄에 대한 유례없이 강렬한 열망이나 정념³¹이기도 했다. 고행으로서의 노동, 인간을 자본의 부품으로 추락시키는 노동으로부터 소위 인간다움을 되찾기 위한 노동문학의 정념은 ‘세계 vs. 자아’의 격투로서의 근대소설 장르의 세계관과도 정확히 합치되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렇듯 일·노동 문제를 말해온 오랜 레퍼런스들이 전제해온 것이 앞서 말한 소위 ‘동물 vs. 인간’ ‘조예 vs. 비오스’ ‘고된 노동 vs. 활동(정치적 삶)’ ‘모멸 vs. 존엄’ 도식이라는 것은 다시금 기억되어야 한다. 이 도식 속에서 늘 동물, 조예, 고된 노동, 모멸이 지양되며 인간, 비오스, 정치적 삶, 존엄이 지향되어 왔다. 즉, 노동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중심으로 시민성은 구축되어왔고, 그것은 여전히 인간, 비오스, 활동(정치적 삶), 존엄을 통해 설명되는 것이다. 하지만 그 가치들을 위해 동원되는 동시에 배제되는 구성적 외부(장애, 미성년, 나이듦, 질병, 동물 등)의 문제는 여전히 ‘노동’의 사각지대로 남는다.

그렇다면 과감하게 이 우열관계 도식에 근거하는 ‘노동’을 근본적으로 질문하는 일도 필요하지 않을까. 이 도식에 대한 정치철학적 질문과 해체는 가령 동물권의 문제의식 속에서 풍부하게 전개되어 오기도 했다.³² 노동 중심성, 노동=시민권의 사유를 과감히 질문할 지성적 용기도 필요한 시대라고 여겨진다. 끊임없이 갱신되어온 노동 담론의 흐름을 문학 바깥의 것으로 배제하지 않을 용기도 이와 관련될 것이다.

31 조현일, 「노동소설과 정념, 그리고 민주주의—김한수, 방현석, 정화진의 소설을 중심으로」, 『민족문학사학회』제54권 0호, 민족문학사학회·민족문학사연구소, 2014, 81-109쪽.

32 이에 대해 일일이 분별하는 것은 다른 지면의 일이지만, 다음과 같은 글을 참고할 수 있다. 조르주 아감벤, 박진우 역, 『호모 사케르』, 새물결, 2008; 최성희, 「동물의 시선: 포우의 ‘검은 고양이’와 데리다의 고양이」, 『새한영어영문학』 제55권 4호, 새한영어영문학회, 2013; 「특집 ‘동물과 문화연구」, 『문화과학』 통권 제76호, 문화과학사, 2013년 겨울; 황정아, 「동물적인 것과 인간적인 것: 문학의 질문과 『엘리자베스 코스텔로』」, 『창작과비평』 제44권 제1호 (통권 제171호), 창비, 2016년 봄; 황정아, 「동물과 인간의 ‘(부)적절한’ 경계: 아감벤과 데리다의 동물담론을 중심으로」, 『안과밖』 제43권 43호, 창비, 2017; 심아정, 「사건화되지 못한 죽음들에 대한 정치철학적 단상: 생명정치극단에서 드러나는 죽음정치적 노동에 연루된 ‘우리」, 『문학선』 제16권 제3호, 문학선 편집부, 2018년 가을.

최근 비주류경제학자, 기본소득 연구자 가이 스탠딩(Guy Standing)은 노동으로 환원되어온 일의 문제에 대해 문제제기를 했다. 그는 최근, 그동안 좌파가 노동(labor)과 일(work)을 동일시해온 것과 그 효과에 대해 비판하는 논의를 남겼다.³³ 스탠딩의 말에 따르면 ‘work’는 활동과 노동의 의미 모두를 갖고 있었으나, 20세기 내내 사민주의자들이 “일(work)의 의미를 노동(labor) 혹은 소득을 버는 활동에 국한시켰”고 그로 인해 일의 노동에의 종속, 노동의 규범화(시간, 젠더, 위치부여, 보호여부 등등)가 진행되었다고 한다. 가령 소련 헌법에서 ‘노동하지 않는 자는 먹지 말아야 한다’라는 레닌의 문구로 인해 노동은 오늘날 병리적 필연성이 되었다고 한다.

이에 대해 소개·논평하는 커먼즈 연구활동가 정남영에 의하면 이 말은 오늘날 오히려 ‘무노동 무임금’이라는 슬로건으로 바뀌면서 주로 노조탄압의 말로 사용되고 있다고 한다. 스탠딩이 이 2018년의 글에서 주장하는 것은 노동을 격상시켜온 역사의 흐름으로부터 이탈하여 ‘비노동주의적 접근법’을 택하자는 것이다. 이것은 “노동이 아닌 일의 가치(보통 사용가치라고 불리는 것)가 적어도 노동의 가치와 동등한 무게를 부여받게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노동의 문제를 임금노동 체제나 시장으로부터 탈구시키는 방식을 상상케 하고, 나아가 단지 이 세상에 태어나 존재한다는 이유에서 최소한의 생존은 보장받아야 한다는 논리(가령 기본소득)로 연결된다는 점에서 이 논의는 중요하다. 이것은 노동과 존재론에 대한 제안이지만, 동시에 상상력과 일종의 용기에 대한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즉, 한국의 문학과 서사들이 현상을 그려내는 것을 넘어, 아직 실현되지 않은 문제의식에 대한 상상과 과감히 접속, 공명할 때 서사도 현실도 조금은 도약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이 글이 언급한 상황과 텍스트는 주로 2016-2019년의 것들이다. 2020년 이래로 펜데믹을 거치면서 일·노동의 문제는 또 다른 국면을 연 것 같다. 근대의 노동중심성에 대해서는 일찌감치 문학 바깥에서 갑론을박이 이어져 왔지만, 여전히 변하지 않은 일·노동의 현장들이 체감되고 있다. 그렇기에 여

33 Guy Standing, “Left Should Stop Equating Labour With Work.”, *Social Europe*(2018.3.13.) <https://www.socialeurope.eu/why-work-not-labour-is-ecological-imperative>. 원문 소개 및 이에 대한 논평 등은 커먼즈 연구활동가 정남영의 홈페이지 및 정남영 선생님의 번역에서 도움을 받았다. <http://commonstrans.net/> 참조. (최종검색일 2021.4.22.)

전히 투쟁의 형식으로만 쟁취되어야 할 무수한 노동과 인권의 양상이 있는 동시에, 다시 노동중심성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워지는 난감한 상황들이 나날이 체감된다. 그것이 어떻게 서사화될 것이고, 어떻게 경험하지 않은 것에 대한 상상과 접속할지 궁금하다. 더 나아가, 그 결과물로서의 서사가 다시 이 세계를 향해 어떤 힘으로 작용할지에 대해서도 생각(기대)하지 않을 수가 없다.

참고문헌

기본 자료

- 김세희, 『가만한 나날』, 민음사, 2019.
김혜진, 『9번의 일』, 한겨레출판, 2019.
장류진, 『일의 기쁨과 슬픔』, 2019.
조해진, 『환한 숨』, 문학과지성사, 2021.

단행본

- 박정훈, 『이것은 왜 직업이 아니란 말인가』, 빨간소금, 2019.
조정환, 『인지자본주의』, 갈무리, 2013.
마리아 미즈, 최재인 역, 『가부장제와 자본주의』, 갈무리, 2014.
마리아로사 달라 코스파, 이영주, 김현지 역, 『페미니즘의 투쟁』, 갈무리, 2020.
마우리치오 랏짜라토, 이성혁 역, 『사건의 정치』, 갈무리, 2018.
마크 피셔, 박진철 역, 『자본주의 리얼리즘』, 리시올, 2018.
실비아 페데리치, 황성원 역, 『혁명의 영점』, 갈무리, 2013.
아마미야 가린, 김미정 역, 『살게 해줘!: 프레카리아트, 21세기 불안정한 청년의 노동』, 미지박스, 2017.
제이슨 W. 무어, 김효진 역, 『생명의 그물 속 자본주의』, 갈무리, 2020.
존 홀러웨이, 조정환 역, 『크랙 캐피탈리즘』, 갈무리, 2013.
질 들뢰즈, 김종호 역, 『대담』, 솔, 1991.
캐슬린 린치 외, 강순원 역, 『정동적 평등: 누가 돌봄을 수행하는가』, 한울아카데미, 2016.

한나 아렌트, 이진우, 태정호 역, 『인간의 조건』, 한길사, 1996.

柴田隆行(監修), 石塚正英, 『哲学·思想翻訳語事典』, 論創社, 2013.

生田武志, 『いのちへの礼儀』, 筑摩書房, 2019.

논문, 평론, 기타

강경석, 서영인, 강지희, 이철주 좌담. 「새로운 작가들의 젠더 노동 세대감각」.

『창작과비평』제47권 제1호(통권 제183호), 창비, 2019, 264-292쪽.

김미정, 「소유를 질문한다: 문학과 커먼즈(1)」, 『웹진 문화다』, 문화다북스, 2019.8.16. http://www.munhwada.net/home/m_view.php?ps_db=letters_vilage&ps_boid=42&ps_mode= (최종검색일 2021.4.22.)

문무기, 「간접고용(근로자공급·하도급·파견·용역) 규율의 법리」, 『노동리뷰』 통권4호, 한국노동연구원, 2005. 4, 35-46쪽.

박정훈, 「알바노동과 기본소득」, 『문학3』, 창비, 2019년 2호, 39-49쪽.

박정훈, 「쌈디와 전소미의 ‘알바 광고’, 이렇게 전복적일수가」, 『오마이뉴스』, 2019.2.19. (http://www.ohmynews.com/NWS_Web/Series/series_premium_pg.aspx?CNTN_CD=A0002512607) (최종검색일 2021.4.22.)

정고은, 「노동이 멈춘 자리—방현석 노동소설 재독」, 『반교어문연구』 제46집, 반교어문학회, 2017. 9, 173쪽.

조현일, 「노동소설과 정념, 그리고 민주주의—김한수, 방현석, 정화진의 소설을 중심으로」, 『민족문학사학회』제54권 0호, 민족문학사학회·민족문학사연구소, 2014, 81-109쪽.

이혜령, 「노동하지 않는 노동자의 초상—1980년대 노동문학론 소고」, 『동방학지』 제175집,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2016. 5, 315쪽.

오길영, 「합당한 수상작인가?: 김세희 소설집 『가만한 나날』과 이소호 시집 『켓콜링』」, 『황해문화』통권105호, 새얼문화재단, 2019년 봄호, 405-419쪽.

_____, 「노동소설에서 사회소설로: 장류진 『일의 기쁨과 슬픔』과 김혜진 『9번의 일』」, 『황해문화』 통권107호, 새얼문화재단, 2020년 여름호, 299-314쪽.

천정환, 「세기를 건넌 한국 노동소설: 주체와 노동과정에 대한 서사론」, 『반교어

문연구』 제46집, 반교어문학회, 2017, 131쪽.

Guy Standing, “Left Should Stop Equating Labour With Work.”, *Social Europe*(2018.3.13.)

<https://www.socialeurope.eu/why-work-not-labour-is-ecological-imperative>. (최종검색일 2021.4.22.)

커먼즈 연구활동가 번역 모임 <http://commonstrans.net/>

Abstract

The Mobius Strip of Labor-Capital and Labor in Korean Novels in the Late 2010s
: As an idea of how to set up problems in future narratives

Kim Mijung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wo. First, it examines the way in which ‘labor-capital’ conditions relate to narratives in the late 2010s. To this end, it examines how the labor-capital relationship today is consciously and unconsciously negotiating within the text. This calls for a review of the conditions of today’s work·labor and the feature of the times. What this article pays special attention to is the way humans are smoothly collusion with today’s systems. In addition, the labor-capital relationship shows a complexity that cannot be reduced to a simple hostility. The activity and subjectivity on human beings is also faltering. This is related to the aspect in which the character of the protagonist of a work·labor novel is created in terms of the creative methods. The character of the novel is largely determined by the system he·she belongs to and what he·she does.

Secondly, this article attempts to suggest that the method of problem-setting labor in the narrative should be different. The work·labor novels dealt with in this article are conflicting and troubled between the “despite” and “dignity” surrounding work. And in the end, he·she longs to leap toward ‘dignity’. In this respect, it is not very different from the work·labor narratives of the past. However, this view of work is based on the modern values of “human=bios=dignity=active=subject=individual=self-reliance=mental and physical health.” This naturally has “animal=zoe=desperation=passive=object=dependence=disability=disease=aging” as a constitutive outside. And the normativeness of labor has been pursued while sublation this constitutive outside. Therefore, the right to work·labor was soon equated with citizenship.

However, at this time, it is easy to miss out on numerous activities and affects that

cannot be reduced to wage labor. It is also easy to block the imagination of outside the capitalist system, which is based on the problem of distribution of rights. In other words, it is clear that labor is a problem of citizenship in reality. But at the same time, work·labor must also be connected to other relationships and imaginations of the world. Ultimately, it should be the cautious conclusion of this article and the beginning of another theme to question the modern labor-centeredness.

Key words: labor-capital, control society, soft tyranny, citizenship, modern labor perspective, relational labor, Korean novels in the late 2010s

본 논문은 2021년 3월 26일에 접수되어 2021년 3월 29일부터 4월 8일까지 소정의 심사를 거쳐 2021년 4월 9일에 게재가 확정되었음